

## INVENTION 365

## 3

## 잠자는 병 치료제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세균학 연구에 전념해온 코흐는 정부의 위촉으로 아프리카에 파견되었다. 아프리카의 풍토병인 수면병의 연구를 위해서였다. 수면병이란 잠든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은 혼수상태가 되어 죽는 병이었다. 그러나 잠자는 병에 걸린 환자는 늘어만 갔지 치료약은 커녕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산책길에 나섰다. 한참을 걷다가 두 갈래로 갈라진 곳에서 망설이는 사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들것은 꼭 한쪽 길에서만 실려 나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코흐는 원인을 조사하다가 악어가 있는 부락 쪽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힌트를 얻어 병원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로써 잠자는 병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그는 오랜 세월 아프리카 주민을 괴롭혀온 잠자는 병 치료제를 만들었다.

## 장난감

6면이 서로 다른 색으로 된 블럭을 흩어놓았다가 다시 색깔을 맞추어 나가는 정육면체의 장난감. 이듬하여 '루빅의 큐브' 라는 두뇌놀이이다.

이 장난감은 한때 우리 나라에서도 붐을 일으켰던 것으로 헝가리 태생의 에르노 루빅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 한동안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았다. 에르노 루빅은 기하학적인 모양을 좋아했고, 그런 모형들을 만드는 디자이너였다. 루빅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에 열중했는데, 어느 날 몇 개의 나무블럭을 쌓아놓고 각 블럭을 고무줄로 묶어 서로 연결시킨 후, 한 면에 색을 칠했다. 그런 다음 한 층을 살짝 비틀자 색을 칠한 블럭이 끼여들었다. 그는 큐브를 수없이 반복해 비틀면서 이동순서를 알아내 1975년 지금 형태의 퍼즐용 장난감을 만들었다. 이것은 작은 큐브 9개가 3단으로 붙어 30억의 배색으로 조합된다.

## 6

## 재봉틀

요즘은 가정에서 바느질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한때 재봉틀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온 재봉틀은 편리한 기계인 것만은 틀림없다.

재봉틀을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하우, 그는 미국 캐사추세츠에서 태어나 늘 가난에 허덕였고, 몸이 허약했는데 날 때부터 한쪽 발을 절었다. 그가 7세가 되던 1826년부터 직물공장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고, 그는 케임브리지로 가서 기계공장에 취직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했는데 고된 공장일을 견디지 못해 퇴근하면 쓰러지듯 누워지냈다. 대신 그의 아내가 샴바느질로 생계를 도왔는데 밤마다 아내의 기계적인 작업을 지켜보다가 하루는 재봉틀을 만들 것을 결심했다. 드디어 1844년 그의 나이 25세가 되던 해 재봉틀 발명에 성공하게 되었다.

## 5